

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단절토지(신원동177-1)의
지정 제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재산권 보호 청원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 의원입니다.

○ 서울시민 윤보섭 외 21명이 청원하고 본의원이 소개하는 「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단절토지(신원동177-1)의 지정 제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재산권 보호 청원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○ 본 청원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024년, ‘수도권 신규택지 5만 호공급 계획’을 발표하며, 이 중 서울 지역 2만호의 주택공급지를 서초구 서리풀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.

○ 청원 대상지는 서초구 신원동 177-1 일대 28,599m²의 토지

로, 도로 개설로 인해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되어 수십 년간 고립된 ‘단절토지’로 남아 있습니다. 토지소유자들은 본건 토지가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및 시행령 상 단절토지 해제요건(도로로 단절된 3만㎡ 미만)을 충족하므로, ‘18, ‘23, ‘25년에 걸쳐 서울시에 해제를 요청해왔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미뤄진 채 ‘서울서리풀 공공주택지구’ 후보지로 발표되었습니다.

- 이는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감내해 온 토지 소유자들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고, 단절토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강제수용을 통해 소유권을 박탈하려는 부당한 처사입니다.
- 청원인들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,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 본 토지를 서울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서 제외하고, 장기간 방치된 본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통해 인근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의 아파트 착공 시점에 맞추어 본 토지에도 주택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본 청원의 내용입니다.

○ 또한 청원인들은 만약, 본 토지의 공공주택지구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전면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을 적용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하여 줄 것을 청원하고 있습니다.

○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청원인들의 바램이 받아들여지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